

다시 부는 명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32

嗚呼 衆生之所以往來者 六途也
오호 증생지소이왕래자 육도야
鬼神沈幽 愁之苦 鳥獸懷憤 號之悲
귀신침유 수지고 조수회울 지비
修羅方曠 諸天正樂
수라방진 제천장락
可以整心 慮趣菩提者
가이정심려취보리자
唯人道能爲耳 人而不爲 吾未
유인도능위이 인이불위 오미
如之何也矣 知納襄闍大乘
如지하야의 지날날열대승
歷觀了義 乘經論所說 無有一法
歷觀了義乘經論所說 無有一法
역관료의승경론소설 무유일법
不歸三學之門 無有一佛 不藉三學而
불귀삼학지문 무유일불 부자삼학이
成道也
성도야

수변임하 장양상태 간월색이소요
聽川溪而自在 縱橫放曠 逐處消時
청천계이자재 종횡방광 축처소시
猶縱浪之虛舟 若凌空之遊羽 現形容於
유종랑지허주약공공지일해 현형용어
寶宇 潘幽靈於法界 應機有感
환우 잠유영어법계 응기유감
適然無準矣 予之所慕 意在斯焉
적연무준의 여지소모 의재사연
若修道人 捨名入山 不修此行
약수도인 사명입산 불수차행
詐現威儀
사현위의
誑惑信心 權越則不如求名利富貴
誑惑信心權越則不如求名利富貴
광혹신심단월즉불여구명리부귀
貪着酒色 身心荒迷 虛過一生
탐착주색身心荒迷 虛過一生
탐착주색신심황미 허과일생

아아, 증생들이 오가는 곳은 육도(六道)이다. 귀신은 어두운 곳에서 근심하는 괴로움이 있고, 새와 짐승은 잡힐까 봐 날고 도망가는 슬픔이 있고, 아수라는 성을 내고, 제천(諸天)은 한창 즐거

《능엄경》에도 ‘과거 모든 부처님도 이 문에서 성취하였고, 현재의 모든 보살도 지금 원만하고 밝은 데로 들었으며, 미래의 수확하는 사람도 이 법을 의지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기약을 맺고, 미리 비밀한 서

삼학 의지하지 않고 성불 불가능
사람만이 보리로 나아갈 수 있다

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정돈하여 보리로 나아갈 이는 오직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난을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저번에 대승경전을 열람하면서 ‘요의승’의 경론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고 있다. 거기에는 한 법도 삼학(三學)으로 들어가가지 않는 것이 없었고, 어떠한 부처도 삼학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불하는 법이 없었다.

악을 퍼서 깨끗한 행을 뒤으면서 참되고 바른 유통(健風)을 우려라 사모하여 스스로 물러서지 않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써 몸과 마음을 닦아 번뇌를 떨고 또 떨어져 물가나 숲 속에서 성인이 될 씨앗을 기르면서 달빛을 보며 소요하고, 냇물 소리를 들으며 자재하여 종횡으로 걸림이 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서나 마치 물결 따라 가는 빈배와 같고 허공을 나는 새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몸은 우주에 나타내되 그윽한 마음은 법계에 잠기게 하고, 열매인 기운이 없이 인연 따라 감응할 것이니, 내가 바라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수도하는 사람이 명리를 버리고 입산해서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형상만 나타내어 신심 있는 신도를 속이고 산다면 그것은 차라리 명리와 부귀를 바라고 주색에 빠져서 신심이 혼미하여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것만도 못하다.

楞嚴經云 過去諸如來 斯門已成就
능엄경은 과거제여래 사문이성취
現在諸菩薩 今各入圓明 未來修學人
현재제보살 금각입원명 미래수학인
當依如是法 是故我輩
당의어시법 시고야배
今結佳期 預伸密誓
금결가기 예신밀서
當修梵行 則仰慕眞風 不生自屈
당수범행즉양모진풍 불생자굴
以戒定慧 資薰身心 損之又損
이계정혜 자훈신심 손지우손
水邊林下 長養聖胎 看月色而逍遙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보경스님

유성 보광명사 회주

“꿈을 樂으로 여길줄 알아야죠”



보경스님은 늘 작업복 차림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수행자의 근본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자가 찾아간 날에도 스님은 배나무를 수확하고 있었다.

5월의 햇살이 그토록 싱그럽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시원스런 바람이 간간히 불면서 피부에 쏟아진 햇살을 지워버리곤 했지만 눈에 비친 계절의 싱그러움은 지우지 못했다. 햇살도, 바람도 다 자연의 이치대로 오가는 것뿐이니, 그 이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뿐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와 자연이 다를 바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 넘는 생각이 든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대전 유성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보광명사에 들어서자 정원처럼 펼쳐진 법당 앞마당이 시원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보경스님은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다. 한암스님의 제자로 선교 교를 두루 겸비했으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한문실력을 갖춘 선지식이다. 그러나 격식과 권위를 싫어하시는 탓에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신다. 스님은 스스로 부처님 법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고 탐하겠느냐며 평생 수행을 강조해 오신 분이 기도 하다.

스님 만나 법기를 청하기 위해 종무소에 들어섰을 때 한 스님이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제사를 지내러 오든 안 오든 상관없지만 여기에 오는 진짜 이유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신도가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자, 스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갔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제사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그게 다른 사람 일일겠습니까?”

보광명사에는 어느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양어장이 있다. 수십 마리의 잉어들이 살이 올라 통통한 게 탐스러울 정도다. 양어장 앞 벤치에 스님과 나란히 앉아 있자니 푸근한 느낌이 와 닿았다. “스님, 아까 종무소에서 신도 분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잉어들은 내가 이곳에 올 때 함께 왔으니까 내 도반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살이 찌고, 저 놈들도 살이 찼으니, 이곳 공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동문서답이다. 종무소에서 첫눈에 보경스님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코끝에 걸려있는 안경, 범상한 느낌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자리 찾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반성하고 또 반성

평범함. 그 유명한 한암스님이 아끼시던 제자라는 인상은 느끼기 힘들었다. “잉어들이 왜 살찌는지 아시는가?” 잘 먹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구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리 떠오르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선불리 말문을 열었다가는 ‘우매한 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꼭 닫아버렸다. “저 녀석들은 주는 대로 아주 잘 먹어요. 먹을 거 제때 먹고, 양어장 물이 오염되지 않으니 근심거리가 없어 살찌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힘든 거지.”

평범한 진리. 예상 밖의 답이었다. 스님께서는 분명히 평범한 진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과연 평범할 수 있는 것인가. 불행듯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

치는 순간이었다. “아까 그 신도는 절에도 잘 나오는 아주 착실한 신도예요. 그런데 요즘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자주 재를 지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살피지 않고 부처님께 기댄다고 해봐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안되면 그 이유를 살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처치인데 그걸 몰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께 빈다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경스님께서는 불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우려와 함께 경책을 내리고 계셨다. “불교 신도를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일체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 수행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도들은 별로 없어요. 지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되게 해달라.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집안에 우환 없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라는 생각만 했지,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이 별로 없어요.”

외람된 질문을 던졌다. “스님께서도 신도들에게 재를 지내주시지 않습니까?”

“재를 기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냐에 따라 기복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도들을 믿고 기다립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무작정 재를 지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인연을 맺어서 불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진짜 자기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요, 불교입니다.”

보경스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출가한 이유도 사실은 한문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어렸을 때 다니던 서당의 훈장 어른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는 바람에 서당이 문을 닫게 되자 보경스님은 공부를 계속 하게 해주겠다는 숙부의 말에 이끌려 숙부의 집으로 갔지만 숙부도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숙부의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이 수덕사였다. 하지만 수덕사는 글공부를 시켜주는 곳이 아니었다. 당시 수덕사 입승이었던 강월스님의 소개

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x6판 / 값 3,5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읽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판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판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판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생화·천화구내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문 것을 더욱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모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고름을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